

아마추어적 프로

나 운 영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외출할 때에도 항상 바이올린을 끼고 다녔고 그가 연구에 몰두하다가도 생각이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바이올린을 연주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한때 세계 제1인자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크라이슬러와 그 기교가 비등비등했었다고 하니 만약에 그가 음악을 전공했다면 아마도 크라이슬러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그는 바이올린을 곧잘 연주했지만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적 수준을 보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프로적 아마추어인지, 아마추어적 프로인지 — 도무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이따금 있으니 어찌 된 일일까?

며칠 전 「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에서 서울 및 전라도 지구 예선 심사를 맡아본 일이 있다. 이번의 음악 콩쿠르만은 음악대학(음악과) 학생을 제외한 — 비 전공생만이 출연할 수 있었으며 독창, 중창, 합창, 독주, 중주, 합주 부문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에 참가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마추어적 프로>란 말에 대해 실감할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학생이 음악대학 학생은커녕 일류음악가 이상으로 훌륭한 솜씨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주를 듣는 동안 다음과 같은 독백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음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려 들고, 음악을 꼭 해야 할 사람은 다른 과목을 전공하니 그야말로 난센스로구나…」

모름지기 프로는 프로로서의 자격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제아무리 아마추어가 잘한다 해도 절대로 우리들 프로를 능가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마추어들을 주시해야겠다. 만약에 프로가 아마추어보다도 그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보라.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러나 그의 테크닉은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했다고 하니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본받아 자기 전공 이외에 적어도 한 가지쯤은 취미로 공부하되 전문가를 능가하리만큼 되려고 노력해 보아야겠다.

학식과 교양은 다르다. 세상에는 학식은 있어도 교양이 없는 자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 중에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다.

대학교수나 대학생 중에서 유행가 「동백 아가씨」를 즐겨 부르는 사람은 교양인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고상한 음악과 유치한 음악 등을 구별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온통 음악淫樂과 성가性歌로 뒤끓고 있는 요즘에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협주곡, 예술가곡, 현악 4중주, 합창 등등을 진지하게 연주하는 <아마추어적 프로>를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프로적 아마추어>가 돼버리지 않도록 자기 전공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는 것을 서로 다짐해야겠다.

<1970. 9. 21. 연세춘추>

[부록] 바다는 부른다 (I)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백구 춤춘다 바다 위에서
흰 돛단배도 바다 위에서
바다 그 바다 끝이 없다
해가 서산을 넘어서 가면
달은 동편에 솟아오네
크고 끝없는 그 바닷가로
나를 불러서 오라는 듯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굽실 뛰노는 바다로 가자

이태리 민요로 널리 알려진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바다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만 같다. 여름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다로 하고 싶어진다.

「나는 물에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강을 두어 번쯤 문제없이 왕복할 수 있는 줄 알기 쉬우나 실은 물에 들어가면 책임지고 가라앉아버리니 한강이고 대천이고 해운대로 나오는 상관없다. 따라서 바다는 어디까지나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바다의 빛깔이나 바다 물결의 리듬 변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제주도라면 한라산을 연상케 되나 뭐니 뭐니해도 바다가 인상적이다. 특히 용두암이나 성산일출봉이나 정방폭포에서 보는 바다는 실로 가관이다.

(1970. 8. 월간 학원)